

(9) 어니스트 헤밍웨이(Earnest Hemingway, 1899-1961)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99년 일리노이주 오크 파크(Oak Park)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내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음악가였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헤밍웨이는 유년시절을 보냈다. 헤밍웨이는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다양한 운동을 배웠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유럽의 다양한 전선에서 참전하였으며 그의 용맹스러운 업적으로 인해 그는 은색무공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1919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20살도 채 안된 나이였지만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대단히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었다.

헤밍웨이는 잠시 언론사에서 일을 하다 유럽으로 건너가 파리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는 1차 세계대전 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파리에 머물고 있었던 소위 “길 잃은 세대”(the Lost Generation)이라고 불렸던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 등과 같은 문인들을 만나서 어울렸다. “길 잃은 세대” 작가들의 대모였던 거트루드 스타인 여사는 파리의 여러 작가들에게 헤밍웨이를 소개했던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헤밍웨이는 거트루드 스타인 여사의 사롱에서 문인뿐만 아니라 피카소(Pablo Picasso)나 호안 미로(Joan Miró)와 같은 예술가들도 만났다. 헤밍웨이는 미국 언론사의 통신원으로 유럽의 각지를 여행하였으며 이때의 경험들이 그의 작품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고 그의 첫 번째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The Sun Also Rises*)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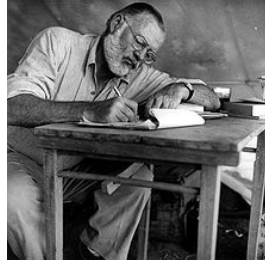
1937년 헤밍웨이는 북미 신문연합사(North American Newspaper Alliance)의 요청으로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는 특파원이 되었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를 집필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는 1940년 출판되었으며 약 50만부가 판매되었다. 헤밍웨이는 이 소설로 인해 풀리처상 후보가 되었으며 부와 함께 문학적인 명성도 함께 얻게 되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도 참가하여 취재하였으며, 전쟁 후에는 그의 용감한 행동으로 인해 동성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헤밍웨이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극적인 모험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2번의 연속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헤밍웨이는 만년에 건강이 점차 악화되었지만 작품에 대한 그의 열정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긍정적이었으며 인간에 대한 신뢰와 불굴의 의지가 지니는 가치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다. 1952년에 출판된 그의 걸작 『노인과 바다』는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 노인 산티아고(Santiago)는 만년의 헤밍웨이 자신을 닮아 있다. 1954년 헤밍웨이는 마침내 그동안의 문학 적 업적에 대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1959년 헤밍웨이는 그의 평생의 거주지였던 쿠바와 플로리다의 키웨스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아이다호주의 케첩(Ketchum)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그는 1961년 여름 자살을 함으로써 소설같은 생을 마감했다.

『노인과 바다』 노련한 어부인 노인과 청새치와의 사투를 그린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80일가량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산티아고는 불운한 어부로 낙인찍혀 데리고 있던 조수도 그의 곁을 떠날 상황이 된다. 그래도 어린 조수는 저녁이면 산티아고를 찾아와 야구 이야기나 모험담을 듣는다.

어느날 산티아고는 혼자 출항해서 청새치로 보이는 거대한 고기를 낚지만 그 고기를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씨름하다 상처를 입는다. 이틀 밤낮을 꼬박 고기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그는 탈진하게 된다. 마침내 청새치를 잡지만 너무 커서 배 옆에다 묶고 집으로 배

를 물면서 희망에 부풀다.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몰려들자 노인은 상어를 물리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역부족이다. 상어들이 몰려들어 청새치의 살을 뜯어먹자 노인은 상어들과 밤새 혈투를 벌여보지만 해안에 도착했을 때 노인에 매에 매달려 있는 것은 청새치의 거대한 뼈뿐이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 쇠약해진 몸을 누이며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갈 결심을 한다.



Ernest Hemingway<sup>1)</sup>

(10) 스콧 피츠제럴드(Francis Scott Fitzgerald, 1896-1940)

스콧 피츠제럴드는 1896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St. Paul)에서 출생했다. 그는 헤밍웨이와 동시대를 살았고, 헤밍웨이와 함께 “길 잃은 세대”(the Lost Generation)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피츠제럴드는 세인트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탐정소설을 학교 신문에 발표했다. 1913년에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했으며 가난했던 그는 졸업 후 곧장 군대에 지원 입대를 하기도 했다. 군대를 나온 후 그는 젤다(Zelda Sayre, 1900-1948)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약혼도 하지만 물질적인 안락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젤다는 가난한 피츠제럴드와 약혼을 파헤버린다. 당시 광고회사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소설을 썼던 피츠제럴드는 젤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너무나 내세울게 없는 상황이었다. 크게 상심했던 그는 뉴욕으로 가서 그동안 썼던 소설을 손봐서 출판했던 소설이 『낙원의 이편』(*This Side of Paradise*, 1920)이다. 이 소설은 그해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피츠제럴드는 일약 유명작가가 되어 젤다의 사랑을 다시 차지하면서 둘은 마침내 뉴욕에서 결혼을 했다.

미국의 1920년대는 “재즈 시대(Jazz Age)”라고 불리는데 이시기의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에 없던 풍요와 소비와 향락의 시기였다. 재즈(Jazz)는 원래 뉴올리언즈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남부 흑인음악이었다. 재즈가 백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그 시대의 돈, 쾌락, 감각적 향락 등과 어우러져 겉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하고 방황했던 시대상황을 상징적으로 대변했기에 그 시대를 “재즈 시대”라고 한다. 이 “재즈 시대”는 불안한 번영의 시대였다. 잠시 동안의 풍요와 쾌락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1929년 10월 29일 뉴욕의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신기루처럼 막을 내리게 된다.

피츠제럴드는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이며, 그의 대표작 『위대한 게츠비』(*The Great Gatsby*, 1925)는 “재즈 시대”의 삶의 방식과 정신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 녹아있는 정서는 물질적인 풍요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인 방황과 공허함이다. 상류사회의 호화로운 생활이면에 숨은 악과 정신적 황폐함은 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사랑에 대한 집착과 묘한 대비를 만들어 낸다. 사실 『위대한 게츠비』는 피츠제럴드의 자전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주인공 게츠비는 피츠제럴드 자신과, 여주인공 데이지(Daisy)는 젤다와 많이 닮아 있다. “데이지”처럼 젤다는 화려하고 허영심이 가득했고

1) [http://en.wikipedia.org/wiki/Ernest\\_Hemingway](http://en.wikipedia.org/wiki/Ernest_Hemingway)

이기적이어서 피츠제랄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아내였기에 피츠제랄드의 친구였던 헤밍웨이는 켈다를 “정신 나간(insane)” 여자라고 불렀다.

피츠제랄드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매체에 글을 팔았고 그와 켈다는 그 수입으로 뉴욕의 사교계에서 흥청망청한 생활을 즐겼다. 그는 유명작가로서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더구나 켈다는 알콜중독과 방탕한 생활의 결과 정신분열증에 걸리면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었다. 아내 켈다의 타락과 붕괴 그리고 피츠제랄드 자신을 둘러싼 혼란스런 상황들은 고스란히 소설의 재료가 되어 『위대한 게츠비』 이후 다시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은 『밤은 부드럽다』(*Tender Is the Night*, 1934)를 발표했다. 이 작품 역시 물질적인 승배와 타락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대한 게츠비』의 주제와 유사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밤은 부드럽다』가 피츠제랄드의 작가로서의 명성을 다시 다지는 작품이기는 했지만 큰 수입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재정적으로 늘 문제가 있었던 그는 1930년대에 그래도 수입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할리우드의 상업영화를 위해 글을 썼다. 할리우드에서의 그의 생활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술과 향락적인 생활은 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쳤다. 사실 피츠제랄드는 대학 때부터 알콜중독이었고 결핵에 걸려 피를 토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지만 술과 향락적인 생활을 절제하지 않았다. 피츠제랄드는 1940년 12월 21일 쇠약해진 건강과 술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그의 아내 켈다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다 1948년 병원에 화재가 나서 불에 타 죽었다.

『위대한 게츠비』는 피츠제랄드의 대표작이자 그 주인공이 가장 작가 자신을 닮았다고 평가받는 소설이다. 좋은 가문과 학벌을 가졌지만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닉 캐러웨이(Nick Carraway)라는 젊은 청년이 소설의 내레이터로 등장한다. 닉은 롱아일랜드의 부유한 거주지에 집을 빌려 살고 있다. 닉의 사촌인 데이지는 남편 톰 뷰케넨(Tom Buchanan)과 그곳에서 살고 있다. 풋볼선수출신인 톰은 한때 부유하고 화려했지만 이제 쇠락해서 그 흔적만 미미하다. 톰의 아내 데이지는 아름답지만 천박하고 응석받이와 같은 기질의 여성이다. 닉은 제이 게츠비(Jay Gatsby)라는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일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는데 초청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게츠비의 초청을 받았지만 정작 그들은 게츠비가 누군지 잘 모른다.

어느날 게츠비는 닉을 뉴욕까지 차를 태워 주는데, 도중에 그는 닉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드러낸다. 데이지의 친구인 골프선수 죠단 베이커(Jordan Baker)가 닉에게 게츠비가 한때 데이지를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닉은 데이지와 게츠비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데, 둘은 처음엔 어색하다가 데이지는 게츠비의 물질적인 성공에 끌리게 된다. 데이지는 게츠비와 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남편 톰은 게츠비가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데이지, 톰, 닉, 죠단 베이커는 뉴욕의 호텔로 출발하는데 톰은 게츠비에게 차를 서로 바꾸어 타고 가자고 한다. 톰은 게츠비의 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는 길에 죠지 윌슨(George Wilson)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죠지 윌슨의 아내는 톰의 정부였다. 뉴욕의 호텔에서 톰과 게츠비는 서로 다투게 되고, 톰은 게츠비가 주류밀매업자라고 폭로한다. 데이지는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고 데이지의 뒤를 따라 게츠비도 따라간다. 둘은 게츠비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죠지 윌슨의 아내를 치어 죽이게 된다. 실제 운전자가 데이지였음에도 게츠비는 데이지가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까 안절부절 한다. 죠지 윌슨은 아내를 죽인자가 게츠비라고 믿고 총을 들고 게츠비를 찾아가 그를 죽인다.



아내 젤다와 피츠제랄드<sup>2)</sup>

(11)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 1902-1968)

존 스타인벡은 1902년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Salinas)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교사였다. 어린 시절 그는 농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그때부터 농장 노동자들의 척박하고 고단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었다. 그의 농장에서 경험은 후일 그의 소설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 1937)을 집필하는데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스탠포드대학에 입학했지만 학위를 받지는 못했다. 뉴욕으로 가서 작가가 되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여행가이드나 물고기 산란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존 스타인벡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1920년대 “재즈 시대”의 과열된 호황은 1929년 뉴욕증권시장의 몰락으로 그 종말이 시작되었다. 1930년대는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의 시대로 1930년대 초에는 미국 전체노동인구의 30%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이후 미국 전역이 실업, 빈곤, 산업기반의 붕괴, 자영농민의 몰락 등 자본주의 자체를 뒤흔드는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존 스타인벡은 이러한 사회상황과 경제적 문제들이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작품을 통해 미국사회와 미국의 자본주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해 작품을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를 “사회적 사실주의”(social realism) 작가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가진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완적인 사회적 해결책을 주장하는 내용의 작품을 썼기 때문이다. 그의 대표작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1939)는 그의 “사회적 사실주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1937년 극심한 가뭄으로 농토를 버리고 유랑의 노동자로 전락해 가는 농부들과 폭력적으로 변한 산업자본주의를 다룸으로써 스타인벡은 미국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적 공동체 사회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스타인벡은 『분노의 포도』로 1940년 풀리처상을 받았으며, 1952년에 발표한 『에덴의 동쪽』(*East of Eden*, 1952)은 1955년에 영화로 만들어 졌는데, 엘리아 카잔(Elia Kazan)이 감독을 했고 당시 청춘의 우상이었던 제임스 딘(James Dean)이 주연을 맡아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존 스타인벡은 66세의 나이로 1968년 12월 20일 뉴욕에서 사망했는데, 오랫동안 피워왔던 담배로 인한 심장질환이 그 원인이었다.

『분노의 포도』는 주인공 톰 조드(Tom Joad)가 살인죄로 감옥에 갇혔다 가석방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고향으로 오는 길에 조드는 한때 목사였던 짐 케이시(Jim Casy)를 만나 함께 여행한다. 고향 농장에 도착했을 때 조드는 농장이 버려지고 황폐해져

2) <http://www.pbs.org/wnet/americannovel/timeline/fitzgerald.html>

있는 것을 발견한다. 조드의 가족들은 은행에 농지를 빼앗기고 친척집에 기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날 친척집을 찾았을 때 그의 가족들이 트럭에 짐을 싣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흙먼지 폭풍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은행 빚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조드는 캘리포니아에 가면 농지가 비옥하고 높은 임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끌리게 되고, 그의 가족들은 남은 모든 것을 투자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려 하고 짐 캐이시도 이들의 이주에 동행을 한다. 서부로 가는 66번 도로는 조드의 가족과 유사한 상황에 빠져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죽고 가족들도 일부 흩어지게 된다. 이제 남은 가족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서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한다. 서부에 도착해 보지만 상황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노동력은 넘쳐나고 임금은 형편없었으며 일자리와 임금을 둘러싼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었다. 노동력 착취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캐이시도 이에 동참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농부들이 파업을 하며, 그 과정에서 캐이시는 살해당하게 되고, 이를 본 조드는 캐이시를 살해한 자를 죽이게 되면서 조드는 도망자가 된다. 조드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 부당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면서 떠난다.



John Steinbeck<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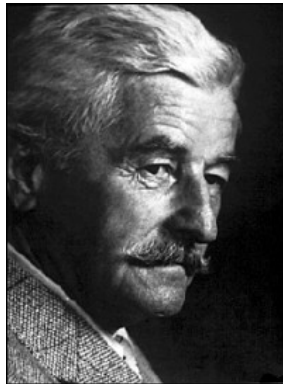
#### (12)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 1897-1962)

윌리엄 포크너는 1897년 미시시피주의 뉴알바니(New Albany)에서 출생했다. 포크너는 남부의 독특한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그 영향은 일생동안 그의 작품 속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포크너의 가족은 포크너가 5살 무렵에 미시시피주의 옥스퍼드로 이사를 갔고, 포크너는 그곳을 평생의 고향처럼 여겼다. 포크너의 증조할아버지는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장교였고 그의 가족들은 증조부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졌으며 남부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옥스퍼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는 혼자서 다양한 고전작품들을 탐독하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키웠다. 고등학교 때 이웃집 소녀를 사랑했지만 그 소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자 실망을 하고 옥스퍼드를 떠나 캐나다에 있는 영국왕립항공대에 지원했다. 포크너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려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다. 캐나다에서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와 미시시피대학에 입학해서 3학기 정도를 다녔다. 대학을 중퇴한 뒤 그는 이런 저런 소소한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글쓰기에 대한 그의 열망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3) [http://en.wikipedia.org/wiki/John\\_Steinbeck](http://en.wikipedia.org/wiki/John_Steinbeck)

1925년 무렵 포크너는 뉴올리언스에서 기거하면서 집필활동을 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6개월가량 머물면서 그의 첫 소설 『병사의 보수』(*Soldiers' Pay*, 1926)를 썼다. 그는 뉴올리언스를 떠나 유럽을 여행했으며 이후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와 목수, 페인트공 등 잡다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했다. 그러던 중에도 그는 계속 글을 쓰는 작업을 계속했으며 1927년에 그의 두 번째 소설 『모기』(*Mosquitoes*, 1927)를 발표했다. 포크너의 글들은 당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작품을 써서 출판사에 보냈지만 번번이 그의 작품은 거절되기 일쑤였다. 1929년에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음향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 1929)가 출판되었다. 『음향과 분노』는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는 독립된 내레이터와 플롯을 가진 당시로서는 대단히 독특한 서술기법과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적 상황을 기발하게 구사한 소설이었다.

포크너는 종종 자신의 소설의 배경으로 가상의 마을인 “요크나파토파군”(Yoknapatawpha County)를 활용했다. 그는 이 가상의 지역을 그의 집필한 대부분의 소설의 무대로 활용했다. 1930년에 요크나파토파 군을 배경으로 하는 장편소설 『내가 누워서 죽어갈 때』(*As I Lay Dying*, 1930)를 발표했고, 이듬해 문제작 『성단』(*Sanctuary*, 1931)을 발표했는데 이 소설은 살인과 강간을 소재로 한 대단히 충격적인 작품이었으며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성단』은 그 충격적인 내용으로 인해 많은 비난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작품이 되었다. 포크너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자신의 글쓰기에 종종 이용했다. 그는 대단히 감성적이고 복잡하고 미묘하고 괴상한 이야기들을 소재로 즐겨 다루었기 때문에 그의 소설은 일견 난해하고 복잡해서 대중적인 호응을 얻기 어려웠다.



William Faulkner<sup>4)</sup>

A Rose for Emily by William Faulkner

I.

---

4) [http://www.olemiss.edu/mwp/dir/faulkner\\_william/](http://www.olemiss.edu/mwp/dir/faulkner_william/)

When Miss Emily Grierson died, our whole town went to her funeral: the men through a sort of respectful affection for a fallen monument, the women mostly out of curiosity to see the inside of her house, which no one save an old man-servant—a combined gardener and cook—had seen in at least ten years.

It was a big, squarish frame house that had once been white, decorated with cupolas and spires and scrolled balconies in the heavily lightsome style of the seventies, set on what had once been our most select street. But garages and cotton gins had encroached and obliterated even the august names of that neighborhood; only Miss Emily's house was left, lifting its stubborn and coquettish decay above the cotton wagons and the gasoline pumps—an eyesore among eyesores. And now Miss Emily had gone to join the representatives of those august names where they lay in the cedar-bemused cemetery among the ranked and anonymous graves of Union and Confederate soldiers who fell at the battle of Jefferson.

Alive, Miss Emily had been a tradition, a duty, and a care; a sort of hereditary obligation upon the town, dating from that day in 1894 when Colonel Sartoris, the mayor—he who fathered the edict that no Negro woman should appear on the streets without an apron—remitted her taxes, the dispensation dating from the death of her father on into perpetuity. Not that Miss Emily would have accepted charity. Colonel Sartoris invented an involved tale to the effect that Miss Emily's father had loaned money to the town, which the town, as a matter of business, preferred this way of repaying. Only a man of Colonel Sartoris' generation and thought could have invented it, and only a woman could have believed it.

When the next generation, with its more modern ideas, became mayors and aldermen, this arrangement created some little dissatisfaction. On the first of the year they mailed her a tax notice. February came, and there was no reply. They wrote her a formal letter, asking her to call at the sheriff's office at her convenience. A week later the mayor wrote her himself, offering to call or to send his car for her, and received in reply a note on paper of an archaic shape, in a thin, flowing calligraphy in faded ink, to the effect that she no longer went out at all. The tax notice was also enclosed, without comment.

They called a special meeting of the Board of Aldermen. A deputation waited upon her, knocked at the door through which no visitor had passed since she ceased giving china-painting lessons eight or ten years earlier. They were admitted by the old Negro into a dim hall from which a stairway mounted into still more shadow. It smelled of dust and disuse—a close, dank smell. The Negro led them into the parlor. It was furnished in heavy, leather-covered furniture. When the Negro

opened the blinds of one window, they could see that the leather was cracked; and when they sat down, a faint dust rose sluggishly about their thighs, spinning with slow motes in the single sun-ray. On a tarnished gilt easel before the fireplace stood a crayon portrait of Miss Emily's father.

They rose when she entered—a small, fat woman in black, with a thin gold chain descending to her waist and vanishing into her belt, leaning on an ebony cane with a tarnished gold head. Her skeleton was small and spare; perhaps that was why what would have been merely plumpness in another was obesity in her. She looked bloated, like a body long submerged in motionless water, and of that pallid hue. Her eyes, lost in the fatty ridges of her face, looked like two small pieces of coal pressed into a lump of dough as they moved from one face to another while the visitors stated their errand.

She did not ask them to sit. She just stood in the door and listened quietly until the spokesman came to a stumbling halt. Then they could hear the invisible watch ticking at the end of the gold chain.

Her voice was dry and cold. "I have no taxes in Jefferson. Colonel Sartoris explained it to me. Perhaps one of you can gain access to the city records and satisfy yourselves."

"But we have. We are the city authorities, Miss Emily. Didn't you get a notice from the sheriff, signed by him?"

"I received a paper, yes," Miss Emily said. "Perhaps he considers himself the sheriff. . . . I have no taxes in Jefferson."

"But there is nothing on the books to show that, you see. We must go by the—"

"See Colonel Sartoris. I have no taxes in Jefferson."

"But, Miss Emily—"

"See Colonel Sartoris." (Colonel Sartoris had been dead almost ten years.) "I have no taxes in Jefferson. Tobe!" The Negro appeared. "Show these gentlemen out."

II.

So she vanquished them, horse and foot, just as she had vanquished their fathers



thirty years before about the smell. That was two years after her father's death and a short time after her sweetheart—the one we believed would marry her—had deserted her. After her father's death she went out very little; after her sweetheart went away, people hardly saw her at all. A few of the ladies had the temerity to call, but were not received, and the only sign of life about the place was the Negro man—a young man then—going in and out with a market basket.

"Just as if a man—any man—could keep a kitchen properly," the ladies said; so they were not surprised when the smell developed. It was another link between the gross, teeming world and the high and mighty Griersons.

A neighbor, a woman, complained to the mayor, Judge Stevens, eighty years old.

"But what will you have me do about it, madam?" he said.

"Why, send her word to stop it," the woman said. "Isn't there a law?"

"I'm sure that won't be necessary," Judge Stevens said. "It's probably just a snake or a rat that nigger of hers killed in the yard. I'll speak to him about it."

The next day he received two more complaints, one from a man who came in diffident deprecation. "We really must do something about it, Judge. I'd be the last one in the world to bother Miss Emily, but we've got to do something." That night the Board of Aldermen met—three graybeards and one younger man, a member of the rising generation.

"It's simple enough," he said. "Send her word to have her place cleaned up. Give her a certain time to do it in, and if she don't . . ."

"Dammit, sir," Judge Stevens said, "will you accuse a lady to her face of smelling bad?"

So the next night, after midnight, four men crossed Miss Emily's lawn and slunk about the house like burglars, sniffing along the base of the brickwork and at the cellar openings while one of them performed a regular sowing motion with his hand out of a sack slung from his shoulder. They broke open the cellar door and sprinkled lime there, and in all the outbuildings. As they recrossed the lawn, a window that had been dark was lighted and Miss Emily sat in it, the light behind her, and her upright torso motionless as that of an idol. They crept quietly across the lawn and into the shadow of the locusts that lined the street. After a week or two the smell went away.

That was when people had begun to feel really sorry for her. People in our town, remembering how old lady Wyatt, her great-aunt, had gone completely crazy at last, believed that the Griersons held themselves a little too high for what they really were. None of the young men were quite good enough for Miss Emily and such. We had long thought of them as a tableau; Miss Emily a slender figure in white in the background, her father a spraddled silhouette in the foreground, his back to her and clutching a horsewhip, the two of them framed by the back-flung front door. So when she got to be thirty and was still single, we were not pleased exactly, but vindicated; even with insanity in the family she wouldn't have turned down all of her chances if they had really materialized.

When her father died, it got about that the house was all that was left to her; and in a way, people were glad. At last they could pity Miss Emily. Being left alone, and a pauper, she had become humanized. Now she too would know the old thrill and the old despair of a penny more or less.

The day after his death all the ladies prepared to call at the house and offer condolence and aid, as is our custom. Miss Emily met them at the door, dressed as usual and with no trace of grief on her face. She told them that her father was not dead. She did that for three days, with the ministers calling on her, and the doctors, trying to persuade her to let them dispose of the body. Just as they were about to resort to law and force, she broke down, and they buried her father quickly.

We did not say she was crazy then. We believed she had to do that. We remembered all the young men her father had driven away, and we knew that with nothing left, she would have to cling to that which had robbed her, as people will.

III.

She was sick for a long time. When we saw her again, her hair was cut short, making her look like a girl, with a vague resemblance to those angels in colored church windows—sort of tragic and serene.

The town had just let the contracts for paving the sidewalks, and in the summer after her father's death they began the work. The construction company came with niggers and mules and machinery, and a foreman named Homer Barron, a Yankee—a big, dark, ready man, with a big voice and eyes lighter than his face. The little boys would follow in groups to hear him cuss the niggers, and the niggers singing in time to the rise and fall of picks. Pretty soon he knew everybody in town. Whenever you heard a lot of laughing anywhere about the square, Homer Barron

would be in the center of the group. Presently we began to see him and Miss Emily on Sunday afternoons driving in the yellow-wheeled buggy and the matched team of bays from the livery stable.

At first we were glad that Miss Emily would have an interest, because the ladies all said, "Of course a Grierson would not think seriously of a Northerner, a day laborer." But there were still others, older people, who said that even grief could not cause a real lady to forget noblesse oblige—without calling it noblesse oblige. They just said, "Poor Emily. Her kinsfolk should come to her." She had some kin in Alabama; but years ago her father had fallen out with them over the estate of old lady Wyatt, the crazy woman, and there was no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families. They had not even been represented at the funeral.

And as soon as the old people said, "Poor Emily," the whispering began. "Do you suppose it's really so?" they said to one another. "Of course it is. What else could . . ." This behind their hands; rustling of craned silk and satin behind jalousies closed upon the sun of Sunday afternoon as the thin, swift clop-clop-clop of the matched team passed: "Poor Emily."

She carried her head high enough—even when we believed that she was fallen. It was as if she demanded more than ever the recognition of her dignity as the last Grierson; as if it had wanted that touch of earthiness to reaffirm her imperviousness. Like when she bought the rat poison, the arsenic. That was over a year after they had begun to say "Poor Emily," and while the two female cousins were visiting her.

"I want some poison," she said to the druggist. She was over thirty then, still a slight woman, though thinner than usual, with cold, haughty black eyes in a face the flesh of which was strained across the temples and about the eyesockets as you imagine a lighthouse-keeper's face ought to look. "I want some poison," she said.

"Yes, Miss Emily. What kind? For rats and such? I'd recom—"

"I want the best you have. I don't care what kind."

The druggist named several. "They'll kill anything up to an elephant. But what you want is—"

"Arsenic," Miss Emily said. "Is that a good one?"

"Is . . . arsenic? Yes, ma'am. But what you want—"

"I want arsenic."

The druggist looked down at her. She looked back at him, erect, her face like a strained flag. "Why, of course," the druggist said. "If that's what you want. But the law requires you to tell what you are going to use it for."

Miss Emily just stared at him, her head tilted back in order to look him eye for eye, until he looked away and went and got the arsenic and wrapped it up. The Negro delivery boy brought her the package; the druggist didn't come back. When she opened the package at home there was written on the box, under the skull and bones: "For rats."

IV.

So the next day we all said, "She will kill herself"; and we said it would be the best thing. When she had first begun to be seen with Homer Barron, we had said, "She will marry him." Then we said, "She will persuade him yet," because Homer himself had remarked—he liked men, and it was known that he drank with the younger men in the Elks' Club—that he was not a marrying man. Later we said, "Poor Emily" behind the jalousies as they passed on Sunday afternoon in the glittering buggy, Miss Emily with her head high and Homer Barron with his hat cocked and a cigar in his teeth, reins and whip in a yellow glove.

Then some of the ladies began to say that it was a disgrace to the town and a bad example to the young people. The men did not want to interfere, but at last the ladies forced the Baptist minister—Miss Emily's people were Episcopal—to call upon her. He would never divulge what happened during that interview, but he refused to go back again. The next Sunday they again drove about the streets, and the following day the minister's wife wrote to Miss Emily's relations in Alabama.

So she had blood-kin under her roof again and we sat back to watch developments. At first nothing happened. Then we were sure that they were to be married. We learned that Miss Emily had been to the jeweler's and ordered a man's toilet set in silver, with the letters H. B. on each piece. Two days later we learned that she had bought a complete outfit of men's clothing, including a nightshirt, and we said, "They are married. " We were really glad. We were glad because the two female cousins were even more Grierson than Miss Emily had ever been.

So we were not surprised when Homer Barron—the streets had been finished some time since—was gone. We were a little disappointed that there was not a public

blowing-off, but we believed that he had gone on to prepare for Miss Emily's coming, or to give her a chance to get rid of the cousins. (By that time it was a cabal, and we were all Miss Emily's allies to help circumvent the cousins.) Sure enough, after another week they departed. And, as we had expected all along, within three days Homer Barron was back in town. A neighbor saw the Negro man admit him at the kitchen door at dusk one evening.

And that was the last we saw of Homer Barron. And of Miss Emily for some time. The Negro man went in and out with the market basket, but the front door remained closed. Now and then we would see her at a window for a moment, as the men did that night when they sprinkled the lime, but for almost six months she did not appear on the streets. Then we knew that this was to be expected too; as if that quality of her father which had thwarted her woman's life so many times had been too virulent and too furious to die.

When we next saw Miss Emily, she had grown fat and her hair was turning gray. During the next few years it grew grayer and grayer until it attained an even pepper-and-salt iron-gray, when it ceased turning. Up to the day of her death at seventy-four it was still that vigorous iron-gray, like the hair of an active man.

From that time on her front door remained closed, save for a period of six or seven years, when she was about forty, during which she gave lessons in china-painting. She fitted up a studio in one of the downstairs rooms, where the daughters and grand-daughters of Colonel Sartoris' contemporaries were sent to her with the same regularity and in the same spirit that they were sent to church on Sundays with a twenty-five-cent piece for the collection plate. Meanwhile her taxes had been remitted.

Then the newer generation became the backbone and the spirit of the town, and the painting pupils grew up and fell away and did not send their children to her with boxes of color and tedious brushes and pictures cut from the ladies' magazines. The front door closed upon the last one and remained closed for good. When the town got free postal delivery Miss Emily alone refused to let them fasten the metal numbers above her door and attach a mailbox to it. She would not listen to them.

Daily, monthly, yearly we watched the Negro grow grayer and more stooped, going in and out with the market basket. Each December we sent her a tax notice, which would be returned by the post office a week later, unclaimed. Now and then we would see her in one of the downstairs windows—she had evidently shut up the top floor of the house—like the carven torso of an idol in a niche, looking or not

looking at us, we could never tell which. Thus she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dear, inescapable, impervious, tranquil, and perverse.

And so she died. Fell ill in the house filled with dust and shadows, with only a doddering Negro man to wait on her. We did not even know she was sick; we had long since given up trying to get any information from the Negro. He talked to no one, probably not even to her, for his voice had grown harsh and rusty, as if from disuse.

She died in one of the downstairs rooms, in a heavy walnut bed with a curtain, her gray head propped on a pillow yellow and moldy with age and lack of sunlight.

V.

The negro met the first of the ladies at the front door and let them in, with their hushed, sibilant voices and their quick, curious glances, and then he disappeared. He walked right through the house and out the back and was not seen again.

The two female cousins came at once. They held the funeral on the second day, with the town coming to look at Miss Emily beneath a mass of bought flowers, with the crayon face of her father musing profoundly above the bier and the ladies sibilant and macabre; and the very old men—some in their brushed Confederate uniforms—on the porch and the lawn, talking of Miss Emily as if she had been a contemporary of theirs, believing that they had danced with her and courted her perhaps, confusing time with its mathematical progression, as the old do, to whom all the past is not a diminishing road, but, instead, a huge meadow which no winter ever quite touches, divided from them now by the narrow bottleneck of the most recent decade of years.

Already we knew that there was one room in that region above stairs which no one had seen in forty years, and which would have to be forced. They waited until Miss Emily was decently in the ground before they opened it.

The violence of breaking down the door seemed to fill this room with pervading dust. A thin, acrid pall as of the tomb seemed to lie everywhere upon this room decked and furnished as for a bridal: upon the valance curtains of faded rose color, upon the rose-shaded lights, upon the dressing table, upon the delicate array of crystal and the man's toilet things backed with tarnished silver, silver so tarnished that the monogram was obscured. Among them lay a collar and tie, as if they had just been removed, which, lifted, left upon the surface a pale crescent in the dust. Upon a chair hung the suit, carefully folded; beneath it the two mute shoes and the discarded socks.

The man himself lay in the bed.

For a long while we just stood there, looking down at the profound and fleshless grin. The body had apparently once lain in the attitude of an embrace, but now the long sleep that outlasts love, that conquers even the grimace of love, had cuckolded him. What was left of him, rotted beneath what was left of the nightshirt, had become inextricable from the bed in which he lay; and upon him and upon the pillow beside him lay that even coating of the patient and biding dust.

Then we noticed that in the second pillow was the indentation of a head. One of us lifted something from it, and leaning forward, that faint and invisible dust dry and acrid in the nostrils, we saw a long strand of iron-gray hair.